

국민생명보호의 최일선, 안전으로 철저 관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으로 빛나는 '안전명가'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는 국민들의 헌혈을 통해 수집된 혈장으로 부터 단백질을 분획해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의 원료가 되는 혈장분획제제를 생산·공급하는 전담 기관이다. 이들 의약품이 혈우병, 간경변증, 무감마글로불린혈증, 가와사키병 등 각종 질병의 치료에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곳은 국민생명보호의 최일선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곳은 그동안 '국민건강의 핵심시설' 또는 '국가보건의프라의 중추' 등으로 불려왔다.

이처럼 의료 및 보건분야의 중요시설로 알려진 이곳이 최근 특이하게도 '전국 최고의 안전사업장'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심사를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곳이 이처럼 안전명가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현재 센터를 이끌고 있는 신창우 원장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고, 실무자들에게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고귀한 혈액을 기반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곳이기에, 단 한 방울의 혈액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펼쳐야 한다고 말하는 그를 만나봤다.

취재 연습기 기자 skyway@safety.or.kr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 신창우 원장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혈장분획센터는 크게 혈장분획제제를 생산, 관리, 공급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헌혈에 대해서는 아실 것입니다. 헌혈에는 혈액 전체를 수집하는 전혈과 혈소판이나 혈장 등 특정 성분만을 수집하는 성분헌혈이 있습니다. 헌혈을 통해 모아진 혈장은 우선 수혈용으로 각 병원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이곳 혈장분획센터로 옮겨져 분획작업을 거친 후 혈장분획제제로 만들어 집니다. 혈장분획제제란 혈장에 함유된 단백질 중 필요한 성분만을 골라 물리화학적 방법에 의해 고순도로 분리된 의약품을 말합니다. 삼투압을 회복시키는 알부민, 혈우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혈액응고 제8인자 원획분, 면역글로불린 원획분이 그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원장님의 신념이 궁금합니다.

우리 혈장분획센터는 국민들이 나누어 준 혈액을 기반으로 혈장분획제제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혈액은 인간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에, 혈액의 나눔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나눔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센터가 단 한 방울의 혈액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생산공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빈틈없는 공정관리의 핵심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사고와 질병에 대한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설과 장비를 관리한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소중한 나눔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안전신념이고 철학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 전체가 협력하여 사업장 내 작업공정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은 사업장 운영의 기본입니다.

이런 신념에 입각해 우리 센터는 위험성평가가 제도화되기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관리자 모두가 타 지역을 오가며 안전교육을 이수했고, 공무원 등 유관부서는 위험성평가 회의실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 안전담당자를 필두로 직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찾고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각 개선을 해나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올해 5월 조금의 부적합 사유도 없이 단 한 번의 준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성평가 정착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직원들의 높은 안전의식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의 경우 사실상 전 공정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눈에 띄는 큰 위험요소는 없는 편입니다. 때문에 직원들도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하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전 직원이 함께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주변 환경을 세심히 살펴보게 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요소를 무시하고 망각해왔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관리자가 지시하지 않아도 직원들 스스로가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서 가장 역점을 두시는 부분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의식 향상'이라고 봅니다. 최근의 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에 기반한 사고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이를 다른 직원들과 공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진행돼야 합니다. 우리 회사 역시 관리책임자는 물론 전 직원이 높은 안전의식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교육을 기본으로 각종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제약회사다보니 QRM이라는 일종의 의료분야 위험성평가를 예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사업장의 안전 기반을 다져 놓을 수 있었지요.

여기에 더해 현장의 모든 전기콘센트를 방수나 방폭기능이 있는 콘센트로 설치했을 정도로 설비의 안전성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왔으며, 장비를 다룸에 있어 실수나 인적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장비에 안전작업수칙도 부착해 놓았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 등 안전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정기적으로 재해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종합건강진단 실시, 풋살장 등 체육시설 마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재해를 꿈꾸는 산업현장의 경영진과 근로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경영진과 안전관계자는 수시로 작업현장을 점검하면서 공정 흐름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진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업장에 안전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센터도 안전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국민들의 헌혈을 통해 얻어진 귀중한 혈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 생명 인프라의 중심이자 인도주의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